

**동우컴퍼니**

전진하라!

배는 항구에 정박해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해있는 배는 얻을 게 없다.

배는 거친 바다와 싸우며 항해할 때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을 향해 항진할 때 가장 멋지다. 그것이 갈치잡이 어선이든,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이든, 최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든 목적을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있다.

정박해있는 인생은 가장 안전할 것이다. 다
칠 염려도, 실패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그 인생은 아물러 얻을 것도, 이를 것
도 없다.

나는 정박해있는 배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위험한 일을 당하고, 때론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힐지라도 너른 바다로 나가길 원한다. 지난 30여 년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 풍랑을 만났겠는가. 난파될 위기가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배를 타고 너른 바다로 나가 얻은 것들로 인해 이런 두려움을 잊는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출항했고, 이제 또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

정진하는 인생이 멋지다. 전진하는 인생이 가치 있다. 물론 풍랑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나 풍랑이 두렵다고 항구에 매여 있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 아니겠는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만선의 기쁨도 누린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로 살지 말자. 써서 낡아지는 편이 낫다. 쓰다가 망가지는 편이 낫다. 그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삭아서 버려지는 삶은 살지 말자. 일단 너른 바다로 나가보는 거다. 일단 도전해보는 거다. 물론 실패할 수도, 다칠 수도,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도태되는 것보다 백번 낫다. 거기서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다치지 않는 기술을 습득할 것이고, 고전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법을 깨달을 테니까.

인생의 바다에는 늘 파도가 친다. 그러나 파도가 있어 배 띄울 맛이 나는 것 아니겠는가. 자~ 이제 배를 움직여 너른 바다로 나가보자!

실력은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난다

“난 피아노 잘 쳐요.”라고 할 때 피아노 갖다 놓고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쳐보라 하면 그의 실력은 금방 드러납니다. 실력은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싱가포르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문득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비유가 생각났다. 그래, 옛말에도 낭중지추(囊中之錐)라 하지 않던가.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있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44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의 사역자들

이상 밤 12시를 넘기며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첫 일성이 참가자들의 마음에 꽂혔을 것이다.

“나는 한국을 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칠레집회 영상을 먼저 보여주셨다. 영상 중 마지막에 병어리를 안수하는 장면에서 귀에 손을 넣었다, 입에 손을 넣고 기도하시는 대목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사실 위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수행하여 역사가 일어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리라.

상 집회마다 동일한 자세로 임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사님을 처음 주회측에서는 매우 버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자신들이 마련한 스케줄이나 시간 안배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달가워할 리 없었다. 그러나 실력이 나타나는데 어찌겠나?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말이다. 참가자들이 은혜를 받고 떠날 줄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님이 질서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다. 목사님은 당



2003 싱가포르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한 목회자들과 함께

이 모였던 이 세미나에서 발견하게 된 목사님의 모습이였다.

원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려 했었는데, 주최측 인사가 우리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마음을 바꿔 목사님을 한국 대표로 초청한 것이었다. 싱가포르 세미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였다. 행사 진행은 각국 대표들이 나와 자국의 선교 현황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고 각 대표 당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사전에 주최측에 약속을 받아 낸 것도 있었지만, 정말 목사님답게 2시간

목사님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신다. 소경의 눈에는 침을 뱉어 바르고, 병어리는 입에 손을 놓고 '에바다'를 외치신다. 이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란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목사님은 집회를 앞두고 절대 식사를 하지 않으신다. 밥 먹고 시간 허비하다가 목적을 상실하면, 집회 망치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거고, 그때 후회해보야 무슨 소용이냐는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니 통역관도, 함께 하는 스태프도 같이 굶는 수밖에. 그런 집중과 노력으로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먹는 밥은 정말 꿀 이상이다. 목사님은 38년 목회에 항상 그런 성취의 기쁨을 양식으로 살아온 분이다. 그러기에 한

신이 주관하는 시간 외에는 정해진 시간 순서에 모두 참석하셨다. 이스라엘 목사의 발표 순서에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후, 참석한 모두에게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헌금하자고 광고하시고 헌금 전부를 세미나 주최자인 탐 헤스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최측 목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탐 헤스 목사는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을 강사로 정식 초청했고, 연일 각국 목회자들의 집회 요청이 쇠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0).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개 새끼는 개고, 소 새끼는 소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99.9%는 ‘저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라고 쫓쫓 혀를 잘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지요? 싱가포르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께 ‘당신이 사람이면 당신 아들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주저주저하며 ‘하나님’이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한 것을요. 그 말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목사가 저런데, 목사가 아직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있는데,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오죽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은 호통이 아니라 통탄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라고 말씀하셨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마15:14)고 비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철종 아십니까? 조선의 25대 왕, 철종 말입니다. 본시 농사꾼이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령에서 졸지에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왕이 된 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도 부러보지 못하고 수렴청정을 당합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그는 제대로 된 정책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지금 철종 꼴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뀐 것을 모릅니다. 그 신분이 조선의 왕에 비교하겠습니까? 삼라만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으로야 누구 누구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이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일5:1).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자주 놀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워왔나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커보니까 내가 이 집 자식인지 아닌지 호적초본 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8:16),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버지 (GOD)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따른 권세를 받아 신적 존재(god)가 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넘겨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6~11).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22:29).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있어야 하는 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도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림

자만 만져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난 이 유가 바

로 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왕자 공주인 것을 알면 그깟 귀신이야?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다 쫓겨갔지요? 병어리 되게 한 귀신, 앓은뱅이로 만든 귀신,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한 귀신... 다 줄행랑을 쳤지요.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이 예수 이름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요. ‘오늘 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있으니 어디서든 담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만 소유하고 있으면 두려운 것도, 불가능도 없습니다(막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빌4:13).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지적하신 말씀인데,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믿는 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고전2:4).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혜, 능변, 세속적인 권세 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라 생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해외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영상을 보여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문이 쉽게 열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요14:11). 여러분, 상인이 물건을 팔 때 학벌이나 재산이나 가문보고 파나요? 아니요, 돈만 보고 팝니다. 새 돈만 받나요? 찢어진 돈도 흔쾌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전도사, 장로,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오래 믿은 것도 안 보십니다. 현재 믿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을 믿음인지, 은사적인 믿음을 소유했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혈투중 걸린 여인에게도, 소경 바디매 오에게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도 “네 믿음대로”,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용하라

이시대 목사가 요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주일 4부 은사 집회 때 그를 보고 귀신이 떠나고, 안수할 때 병이 나음을 입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을 자주 쏘면 명중하는 날이 옵니다. 칼도 자주 써야 잘 썰립니다. 귀신도 자주 쫓아야 잘 쫓습니다.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장터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마귀와 악한 영, 그리고 귀신들을 능히 이기고, 이 땅에서 천국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는 더는 호랑이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믿음의 반대말

한 신앙간증프로그램의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꿰뚫은 말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는 자들이 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라 여겨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할 때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정도는 그냥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갈등이 생긴다. 그 본심을 굳이 들춰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합리화하고자 여러 핑계를 궁리한다. ‘마음만 안 뺏기면 되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본심은 그게 아니란 걸 아실 거야.’ 그러나 이건 큰 착각이다.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정리해주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7~18).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려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에 365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해외집회에 나가 집회를 준비할 때면 거의 항상 경험하는 바인데, 대부분 야외에

서 진행되다 보니 날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집회를 준비하는 날이면 꼭 비가 내리는 등 일기가 불순해진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고 이 집회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도 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에 비를 멈추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여전히 다시 걱정이 앞선다. 그럴 때면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하던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던 마음 역시 두려움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두려움에 매몰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해외집회 중 꼭 비를 멈춰주신 것도 아니다. 어떨 때는 아주 폭우가 쏟아진 적도 있다. 집회가 폭망할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그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시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가 있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직 믿음뿐이다.

Henry Han

:: 성경에세이 ::

어리석은 자여~

여보게! 요즘 내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자주 있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살만하니까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요.”라는 말을 할 때라네. 내가 아파보니까 나만 서럽더군.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더군. 솔직히 내가 아프면 그 살만한 것이 무슨 소용 있는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며 살만하게 만들어놨냐 이 말일세. 정말 어리석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여보게! 그래서 나에게 인색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걸세. 나부터 건강해야지, 나부터 잘살아야지, 나부터야. 이기주의라고 해도 좋네. 그런데 이기주의가 이타주의의 근본이 됨을 알아야 한 다네. 성경에도 너부터 구원을 받아야 네 가족, 친지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행16:31). 내가 잘살아야 남도 잘 수 있고, 내가 배워야 남도 잘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하고 통탄했는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당 할까 봐서 아닌가(고전9:27).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네 필요부터 채우고, 남은 것으로 부족한 이를 도우라 고도 하셨네. 나는 굶아가면서, 나는 헐벗 으면서 남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유여(有餘)한 것, 곧 남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 지.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내가 있어야 사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도 존재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의 시발점은 나라네. 기준도 나야.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야 하네. 내 건강을 위해, 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네. 그리고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해야지. 요즘 나는 나를 많이 챙기네. 한 번 아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지. 내가 건강해야 일본도, 필리핀도, 저 페루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닌가.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것들을 어찌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마16:26)? 성경은 ‘취도 못 쓰는 것, 있어도 못 쓰는 것은 병’이라고 하셨네(전6:1~2). 나를 위해서 쓰게. 이게 내가 아프면서 깨달은 거라네.

봉우

:: 겨자씨만한 믿음 ::

기도라는 대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는 것이 하나씩은 꼭 있다. 이 땅에서의 생은 유한하고 세상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며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많은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과 같은 기도를 드린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받거나 자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좌절하거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일 것 같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온 것처럼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대화이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화라 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부모님께 하는 요청이 거절당하면 때로는 들어줄 때까지 울고 불고 떼쓰고 조른다. 부모님은 못 이기는 척 무언가를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해서이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닐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찌라도 그 영혼을 과리하게 하셨도다”(시106:15). 떼를 쓰는 것 자체가 떼를 쓸 상대방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다. 떼를 쓰는 듯한 일방적인 요청도 침묵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에 기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한다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자식도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부모님께 요청하는 자식보다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자식이 이쁘듯이 말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김성일 집사

JC 아카데미

2023년 4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 내가 매일 기쁘게 ::

말의 힘

같이 공부하는 동료 부부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 새 학기부터 시작한 강의 일정이 그들과 같아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퇴근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나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대학 강의를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애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연중행사로 중요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니 강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구계획서도 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 나를 다시 평온한 상태로 회복시킨 것은 다름 아닌 동료 부부였다. 그 부부는 대화 중에 말이 끝날 때마다, “훌륭합니다.”, “대단하네.”, “정말 멋지십니다.”, “언니는 잘할 거라 믿어요.” 등등의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그들은 한 번의 대화 속에서 최소 12번 이상의 칭찬을 쏟아낸다. 너무 많은 칭찬을 들어서 어질어질할 정도다. 처음에는 너무 반복되는 긍정의 말들을 흘려들었다. 입에 발린 소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혼자서 문득 그들과의 대화를 되새기게 되는데,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

단한 거였구나.’, ‘나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어울린 지 세 달째에 접어들었다. 요즘의 나는 불안장애약을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고, 안정적으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구계획서도 무사히 제출하였다. 그리고 밤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 평안하다고, 천국이 바로 이곳이라 말하며 퇴근하는 남편을 꼭 안아주고 있다. 지난 3개월간 그들과 지내면서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잠12:18)는 말씀처럼, 양약과 같은 그들의 말에 내가 치유되었다. 또 하나님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고 하셨는데, 나는 선한 말을 하는 동료 부부에게 동화되어 나 역시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다. 매일 선한 말과 살리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전훈지 집사

:: 귀를 기울이세요 ::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목회성장학 강의 시간에 2003년 싱가포르에서 진행하셨던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영상 초반부터 목사님께서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향해 호되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을 향해 질문하셨는데, 그 분이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라는 질문에는 시원하게 대답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자신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분을 보고 웃자, 이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왜 웃어요!’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들 머릿속에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서는, ‘왜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모르는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18번 설교 중 하나인 마이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를 팔 때 사는 사람의 외모나 어떤 조건

을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돈만 보고 파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주고 마이크를 산 사람은 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40년 가까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에 하셨던 말씀을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총회장 목사님이 담대하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당신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엄청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에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자!’ 다짐해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그런 저이기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행동과 생각을 바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저를 더욱 레벨업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들이 비웃을 만한 목표를 세워보자’고 해서 세운 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걸음을 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 당당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제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따라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뛰었더니, 지금의 제가 그 목표를 이루고 이 자리에 있노라.’하고 말입니다.

윤예녹 생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와 진짜 역대급이다!’, ‘거의 평화통일 기도성회 준비 수준이야!’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를 준비하며 전도의 최전선에 간간 젊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하는 찬양집회 가운데 KBS아레나를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사명과 함께, 한달 내내 작정기도를 하고 릴레이 금식을 하며 6주동안 노방전도를 했다. 그러니 이 전도운동이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와 똑같다고 여겼을 것이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며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나오는 지금 시점을 활용하여 한강으로, 홍대로, 이태원으로, 광화문으로 나가 어떻게든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를 알리고 전도를 다니는 지금의 형태는 정말 역대급이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붙잡고도 우리의 찬양집회를 알리는 젊은이들의 복음의 발걸음은 너무나 뿌듯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에 전심전력으로 전도하며 문득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세례요한이 떠올랐다(마3:1~3). 예수님의 길을 닦고 미리 예비한 세례요한의 심정이 이러했으리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닦아 놓고 준비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다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생각하며 기도와 전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 보니 복음 전파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었다. 전도하며 사용해 보니 이런 전도용품이 효과적이더라, 노방전도 하기에는 이 장소에 사람이 많고 홍보하기에 좋더라, 택시나 버스에 광고가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더라, SNS 홍보를 더 기발하게 해보자 등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경험이라는 값진 지혜를 얻게 되었다.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를 베푸셔서 예수중심교단의 미래 젊은이들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울시청광장에서 다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리는 그날, 젊은이들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현혜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그릿(Grit)

나는 책을 통해 ‘그릿(Grit)’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후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됐다. 누군가에게 그릿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열정적 끈기가 있다는 의미고,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무언가 생동감이 느껴진다. 200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는 정해진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품성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 특수부대원들까지 연구대상자를 방대하게 설정했다. 어떤 생도가 끝까지 훈련받고 누가 중도에 탈락하는지, 문제아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 중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끌어내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남다른 성공을 달성한 사람들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었다. ‘그릿’이라고 부르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에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인맥, 뛰어난 토익/토플 점수, 리더십 경험, 운동 실력, 타고난 재능 등 그 어떤 것도 아닌 중요한 것은 ‘그릿’이었다. ‘그릿’은 재능이나 교육, 능력, 기회와 다르다. 인맥, 실력, 경험 등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요소다.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부모를 잘 만나면 특정한 재능에서 남보다 앞설 수 있고, 스승을 잘 만나면 부족한 능력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그릿’은 지식이 바닥나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쫓

하게 전진하게 해주는 품성이다. ‘그릿’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품성이고, 열정과 끈기의 결합이다. 이 결합이 원하는 삶을 향해 우리를 밀어주는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가? 아니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지 말이다. 우리에게 ‘그릿’과 같은 품성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도, 풍성하지도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릿’, 열정과 끈기가 없어서일지 모른다. ‘그릿’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필자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끈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필자의 지도 학생이 자기 성적과 취업 등을 상담하며, “내 삶의 상황 회복과 성적 향상, 그리고 취업을 위해 수많은 밤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약 2년의 세월 동안 학생을 지켜봐온 필자는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이 학생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했다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였다면 좋지 않은

성적,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하나 없이 나를 찾아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좋은 기관에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그릿’이 없었다. 말한 대로 된다는 생각으로 말로만 뿌렸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에 의지만 했을 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끈기가 없어 결국 현실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다. 사실 “나는 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자 역시 전혀 그렇지 못하다. 말은 항상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고 ‘싫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고 ‘싫다.’ 내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싫다.’ 하지만 솔직히 필자도 원하는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랄 때가 많다. 생각과 의도는 좋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우리가 약속받은 삶을 얻을 수 없다. 좋은 의도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도 시동을 켜고 액셀을 밟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릿’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2023년 새롭게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 의도를 결단하고 열정적 끈기로 발전시켜 나가자.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부활절 예배

2023년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됐던
성찬식도 있으니
기도로 준비합시다